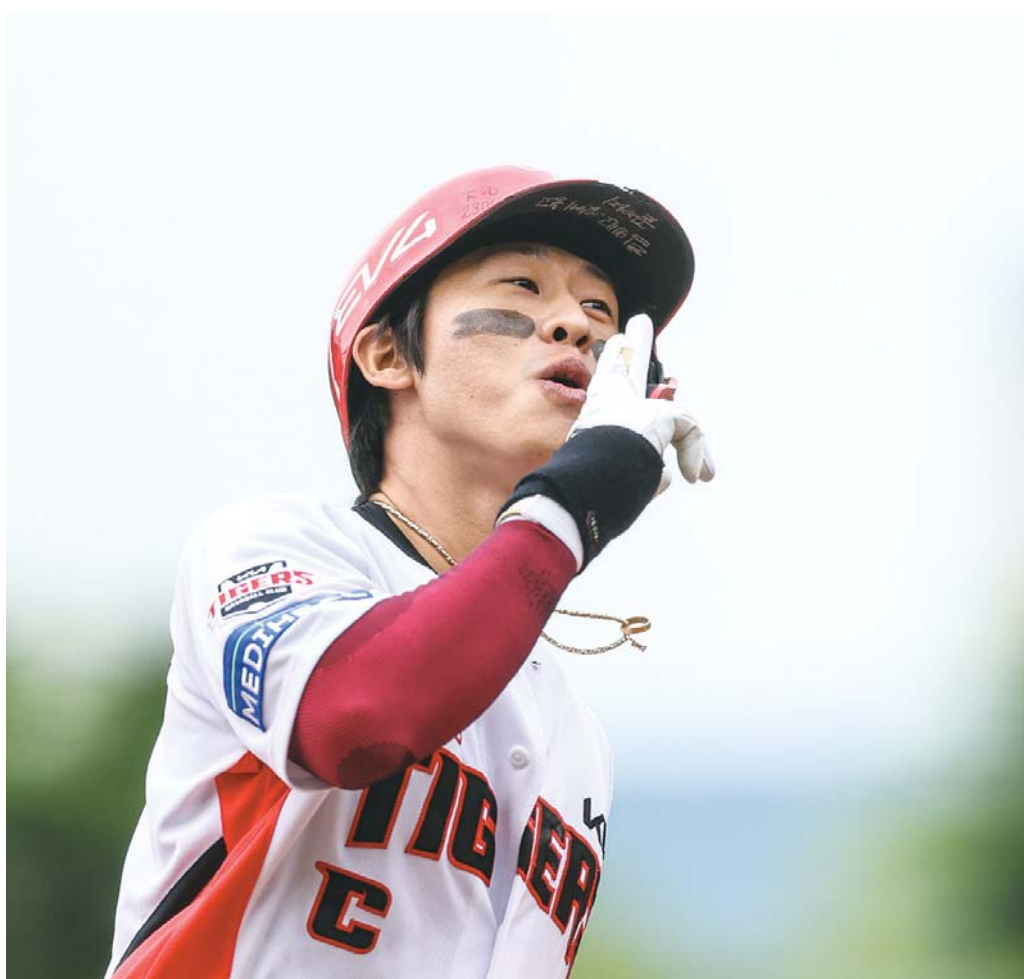


‘박찬호 이탈’…KIA, 흔들린 FA 지형 바뀌나



박찬호

〈KIA 타이거즈 제공〉

‘내부 단속’ 기조 유지 속 ‘핵심 2인’ 협상에 쏠리는 무게 ‘외부 FA·아시아쿼터 활용’ 등 예산·전략 보완 방향 고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FA 시장이 첫 분기점을 맞았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단의 FA 협상 지형도 변화의 기로에 섰다.

지난 14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찬호와 두산은 ‘4년 총액 80억 원’ 수준에서 큰 틀의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션과 계약 기간 조율만 남겨둔 상태고, 이르면 이번 주초에 계약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찬호의 협상 흐름은 KIA의 FA 구도를 흔드는 첫 번째 신평탄이었다.

KIA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6명의 내부 FA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스타 최형우·양현종, 핵심 불펜 조상우, 좌완 이준영, 백업 포수 한승택, 그리고 FA 시장의 ‘최대어’였던 박찬호까지. KIA에겐 박찬호의 잔류 여부가 내부 FA 전략의 기준점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분위기를 종합하면 KIA는 비용과 전력 유지 사이에서 ‘합의점 찾기’에 가까운 전략을 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단은 기본적으로 ‘모두 잔류’를 내부 방침으로 세웠지만, 현실적인 예산 한계 속에서 박찬호까지 적극적으로 붙잡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상적으로는 모두 잡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산의 벽이 컸다”는 반응이 뒤따른다.

박찬호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KIA는 남은 5명의 FA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구체화하게 됐다.

가장 무게감이 큰 선수는 역시 최형우와 양현종이다. 전력 기여도는 물론 상징성과 팬심까지 고려하면, 두 선수의 거취가 곧 KIA의 ‘얼굴’을 결정한다. 양현종은 내년 로테이션의 사실상 유일한 베테랑 국내 선발이고, 최형우는 40대에도 중심타선의 핵이자 역사적 기록을 써 내려가는 타자다. 협상 자원이 두 선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불펜의 축인 조상우와 좌완 이준영도 빼놓을 수 없다.

시즌 중 기록도 있었지만, 두 선수 모두 내년

반등을 노리는 KIA에 필수적인 전력 자원이 다.

반면 백업 포수 한승택은 시장 흐름과 타 구단 수요에 따라 계약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팀에 필요한 퍼즐 조각이지만, 우선순위에선 앞자리를 차지하진 않는다.

이제 시선은 구단의 전체 FA 전략으로 향한다. KIA의 현 FA 기조인 ‘내부 단속’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방침 자체가 ‘전원 잔류’에서 ‘어디에 집중할지’로 일부 확장될 여지는 있다.

박찬호에 투입됐던 예산이 사실상 리셋된 만큼, 구단의 외부 FA 카드 활용 여부와 향후 협상 구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유격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시아쿼터’ 활용 논의까지 더해지며, 전력 보강 방향 역시 새롭게 설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은 협상은 이제 예산과 전력 보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2번째 막’으로 넘어갔다.

조용하지만 계산은 이미 시작됐다. 박찬호의 이탈이 가시화된 지금, 남은 5명의 FA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포지션을 우선 보완하느냐가 이번 겨울 KIA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주홍철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15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광주시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서구에 우승기를 전달한 후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 종합우승…빛고을 시민체육대회 성료

‘건강한 시민과 함께 빛나는 광주’ 빛고을 체육문화축제 자리매김

빛고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우의를 도모하는 제37회 광주시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5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시민체육대회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안도걸·정준호 국회의원, 명진·조석호·홍기일·정다는 광주시의원을 비롯해 5개 자치구 체육회장, 종목단체 회장 등 1천5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식전행사로 광주시스포츠댄스연맹 소속 스템이 흥겨운 무대로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어울림경기(단체 줄다리기, 바람 잡는 특공대, 에드벌론 공중부양)로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어 각 구별 장기자랑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자치구간 대항전으로 치러진 테니스는 북구가, 농구는 서구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어울림 경기와 종목경기 등에서 선전한 서구가 차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광주시민체육대회는 해를 더할수록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스포츠로 하나된 빛고을 체육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며 “광주시체육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은 물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역량을 집중, ‘건강한 시민과 함께 빛나는 광주’를 만들어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2025 추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에서 여고부 우승을 차지한 광양여고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양여고, 추계 여자축구 연맹전 우승

광양중앙초, 초등부 준우승

광양여고가 2025 추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여고는 지난 12일 경남 합천 군민체육공원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지난대회 우승팀 포항제철여고를 2대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예선 전적 2승1패로 8강에 진출한 광양여고는 인진디자인고를 5대0, 경남로봇고를 1대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올 시즌 여왕기와 전국여자축구선수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광양여고는 전국체전 동메달에 이어 추계연맹전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광양중앙초는 초등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예선 조 1위로 8강에 오른 광양중앙초는 8강에서 대전천동초를 6대0으로 완파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광양중앙초는 준결승전에서 강릉FC U-12 위민을 상대로 1대3으로 끌려가다 후반 추가시간 2골을 터뜨리며 3대3,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고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진주남강초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경기 종료 직전 아쉽게 실점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광양중앙초는 춘계대회 준우승, 여왕기와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 전국소년체전 동메달, 그리고 이번 대회 준우승 등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며 전남 여자축구의 탄탄한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청 김수린·순천시청 남수현, 亞양궁선수권 ‘金’

남수현, 여자개인전 은메달

한국 여자 리커브 양궁이 2025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장민희(인천시청), 김수린(광주시청), 남수현(순천시청)으로 팀을 꾸린 한국 여자 리커브 대표팀은 지난 1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끝난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을 6-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이번 대회 리커브 종목에 출해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을 통과하지 못한 남녀 국가대표 2인을 과격한 한국은 다른 리커브 종목에서는 우승하지 못했다.

장지호(예천군청), 김예찬(코오롱), 서민기(국군체육부대)가 출전한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4-5로 패해 준우승했다.

혼성 단체전에서는 장민희와 서민기가 동메달을 따냈다.

여자 개인전에선 남수현이 은메달을, 남자 개인전에선 서민기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커브 대표팀은 이번 대회 파낸 메달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다.

컴파운드 대표팀은 금메달 1개와 은, 동메달 2개씩을 가져왔다.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이은호(한국체대)가 베테랑 최용희(현대제철)를 물리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최용희는 개인전 은메달에 더해 김중호(현대제철), 이은호와 함께 나선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해 모두 2개의 메달을 수신했다.

여자 대표팀의 오유현(전북도청), 박예린(한국체대), 박정윤(창원시청)은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234-236으로 져 준우승했다.

혼성 단체전에서는 김중호와 박예린이 3위 결정전에서 카자흐스탄을 156-155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따냈다.



아시아양궁선수권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태극궁사들. 왼쪽부터 남수현, 김수린, 장민희 〈대한양궁협회 제공〉

두 종목을 합쳐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수확한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파낸 인도에 밀려 종합 순위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서창완, 亞근대5종선수권 개인·단체 ‘銀’

전남도청 근대5종팀 서창완이 아시아근대5종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창완은 지난 15일 일본 안조에서 열린 대회 개인전 펜싱에서 24승으로 1위(250점)를 확보했고, 장�물 달리기 8위(347점), 수영 6위(303점), 레이저런 5위(689점)를 기록하며 종합 1천589점으로 1위 리류창(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창완은 김정환(경기도청), 이종현(대전시청)과 함께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4천627점으로 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합작했다.

함께 출전한 전국체전 근대5종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김영하(전남도청)는 펜싱 경기 도중 부상으로 기권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대회가 열린 안조 경기장은 내년 아시안게임 근대5종 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으로 선



2025 아시아근대5종선수권대회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서창완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수들에게 미리 경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박희중 기자